

남원사랑상품권 120억 판매 예상

20일 20억원 추가발행... 12월까지 이용 독려 활동

남원시는 올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남원사랑상품권 100억원이 소진되며 추가로 20억원을 오는 11월 20일 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이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참해주시는 시민들과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가맹점 확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골목상권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선순환 경제구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가맹점 모집과 이용 독려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2020년에는 3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 할 예정이며 모바일상품권도 발행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사랑 상품권은 식당, 의류매장 등 2,30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상품권을 구입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건전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는 많은 가맹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바른먹거리 당노학교 인기

전문성 갖춘 교수진에 힐링교육으로 교육생 만족도 높아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에서 열린 바른먹거리 당노학교가 14일 3박 4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상반기에 이어 지난 11일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당노에 관심 있는 성인 80여명이 전국에서 모여 다시 한 번 인기를 실감케했다.

바른먹거리 당노학교는 약물치유에 집중하는 기존 당노치료법과는 달리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당노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순창군이 운영하는 치유프로그램이다.

지난 2014년 9월 첫 선을 보인 바른먹거리 당노학교는 1박2일과 3박 4일 일정으로 운영하며, 매번 정원을 가득채워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568명이 바른먹거리 당노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전국에서 다녀갔다.

특히 올해는 교육생들에게 신뢰성을 더하고 공신력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 참여 강사진의 전문성에 신중을 기했다. 당노학교에 초기부터 참여한 태초먹거리 학교 이계호 교수를 비롯한 당노 명의인 조선대학교병원 당노센터장 배학연 교수, (사)한국 음식문화 전략연구원 전미란 선임연구원 등이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였다.

교육 첫 날인 11일에는 당노관리에 첫 단추가 되는 혈당 측정방법부터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법 등 당노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자세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이계호 교수의 '당

노와 우리 몸의 관계에 대한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강의와 함께 한의학에 기반한 토발 건강관리 강의도 진행됐다.

이튿날부터 치유농장에서 자연으로부터 마음의 건강을 얻는 시간이 이어졌고, 뇌를 이완시키는 브레인댄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당노식 레시피로 당노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체험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히 장건강 프로젝트로 연구소에서 개발한 아로니아 유산균 섭취와 순창군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 당노식단이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당노병을 앓아 지친 몸과 마음을 함께 교육에 첫 단추가 되는 혈당 측정방법부터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법 등 당노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자세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이계호 교수의 '당

임실군, 태풍 피해 벼·공공비축미곡 매입 실시

품질 제한 없어

임실군이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벼 전량 매입에 나섰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11개 읍·면에 대해 2019년산 태풍 피해 벼 매입을 진행하며, 태풍 피해 벼 매입 완료 후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심민군수는 지난 12일 관촌면을 시작으로 직접 수매 현장을 찾아, 태풍 피해 농가를 격려하고 수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현재 군은 출하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내 13개소에서 현시수매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올해 잦은 태풍으로 인해

벼 도복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고, 품질이 낮은 쌀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태풍 피해 벼 전량을 매입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 벼는 품질 제한이 없으며, 임실군은 사전수요조사 결과 농가 신청량 2만6670가마(800톤, 가마당 30kg) 전량을 매입한다.

태풍 피해 벼 중간정산금은 30kg 가마당 2만원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연말 공공비축미곡 가격이 결정되면 1등급 가격을 기준으로 잠정정도의 A는 76.9%, 잠정정도의 B는 64.1%, 잠정정도의 C는 51.3% 수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올해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은 2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신풍진' 단일품종이며, 매입량은 4만9373가마(1974톤)이다. 산물벼 1만275가마(411톤)은 지난달 31일까지 매입을 완료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매입대금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중간정산금(3만원/가마)을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최종 매입가격을 확정하여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심민군수는 "태풍 등 어려운 기상 여건을 잘 이겨내고 쌀 생산을 위해 고생한 농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지난해 12월부터 12개 읍면에 600여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행복임실 지킴이를 구성했다.

임실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총력

찾아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협약·교육

임실군은 지난 9월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 사건에 따른 정부의 '복지사각 발굴 대책 보완조치(19.9월)'와 관련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기능 강화를 위하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12개 읍면에 600여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행복임실 지킴이를 구성한 바 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이장, 봉사단체 회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취약계층 등을 발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임실읍에 소재한 BR임실점(점주 이선화)을 시작으로 문구점, 약국, 주유소 등 소매점과 음식점, 미용실 등 서비스 업종 20여개 단체(업체)를 찾

아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MOU를 체결하고, 리플렛 자료를 제공 활동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 신청한 단체·업체 대표 및 종사자 등은 희망지역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인 '행복임실지킴이'로 추가 위촉하고 지역의 구석구석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각 읍·면의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대상가구에 대한 결연을 맺고 주기적인 안부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행정과 지역주민 등이 함께 협력하여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지역복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설명회

남원시에서 지리산농협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및 액션그룹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에 앞서 사업 설명회 및 액션그룹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시설·인력·조직 등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가능하게 하도록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조직을 발굴·육성해,

일자리를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라며 지역민들의 참여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역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역상생기반을 위한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역 매아리

순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순창군이 '순창군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상습 발생지역 등이며,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무단사용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점검기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무단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홍보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1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진행되고 있다.

첫날 총무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기획실 감사에서는 대규모 시설 건설이 많아지면서 운영비 등 시비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투자대비 효과분석 선행을 당부했으며, 감사실은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용되도록 보조단체에 회계처리기준이나 감사 지적사례 등이 정리된 자료를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고, 시민소통실 감사에서는 남원시는 연말 지출비율이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가능한 상반기 추진해 줄 것을 지적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관) 일자리경제과 감사에서는 월매야시장 운영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남원사랑상품권 판매와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기업지원과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현장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기업후견인제(멘토·멘토) 운영시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관내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현실적이고 이로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도 요구하였고, 안전재난과는 불놀이 위험구역 전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는 행정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